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17년 34호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국제유가 변동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유가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

2017년 9월

동향분석실 강내영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I. 연구 배경	01
II. 연구방법 및 모형	04
III. 업종별 수출입 단가 및 수지 영향	06
IV. 결론 및 시사점	09

2014년 상반기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국제유가는 이후 급락하여 2016년 초에는 역대 최저치인 20달러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부터 다시 50달러를 회복했으나, 2017년 상반기 들어 국제유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7~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감축 소식, 미국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 등 공급과잉 해소 기대 속에서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유가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수출입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은 생산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국에 비해 국내 수출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고유가로 인해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국제유가 변동이 수출입 단가로 전이되어 우리 무역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 충격이 우리 무역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국제유가 변동은 전체적인 무역수지에 음(-)의 전이효과를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하락)하면 수지가 악화(개선)되는 추세다. 이는 전체 수입 중 원유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무역의 특성상 유가 상승(하락)으로 원유수입액이 증가(감소)하여 전체 무역수지에 부정적(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유를 제외한 제조업 위주로 업종별 무역수지에 대한 유가 변동의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 업종별로 유가의 파급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전체적인 무역수지와 달리 유가 상승 또는 하락 시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등의 수출입 단가 역시 상승 또는 하락하는 양(+)의 전이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비용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키는데 있어서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여 수출입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 하락기보다 상승기에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관련 품목별 수출입 단가 영향>

	수출단가 탄력성			수입단가 탄력성		
	유가 1% 상승		유가 1% 하락	유가 1% 상승		유가 1% 하락
석유제품	0.8349	>	0.8111	0.8259	>	0.8156
석유화학	0.3388	>	0.2949	0.2996	>	0.2548
일반기계	0.1007	>	0.0816	0.0966	>	0.0830
섬유	0.0944	>	0.0355	0.1109	>	0.0617

유가의 수출입 단가탄력성을 기초로, 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관련 품목의 무역수지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산업별 무역수지는 유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단, 유가 하락기의 충격이 상승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가 1% 하락 시 유가관련 품목(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섬유)의 월별 무역수지가 2,282만 달러만큼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유가 1% 상승 시에는 동 품목의 수지가 1,687만 달러 개선에 그쳤다. 월별 유가 등락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영향을 산정해 본 결과, 2016년에 유가 하락으로 수지가 37.3억 달러(원유 수입분 제외) 악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유가가 변동함에 따라 유가관련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변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유가가 전반적으로 50달러를 상회하면서 우리 교역규모가 커지고 유가관련품목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하반기 유가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아직 낙관하기엔 시기상조이다. 이에 제조업 관련업종의 무역수지의 유가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제조업 중심 → 지식서비스업 중심), ②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③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유가 관련 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대외경쟁력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문

I. 연구 배경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4년 상반기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여 2016년 초에는 역대 최저치인 20달러대를 기록하다 작년 12월에는 50달러 다시 회복

● 2016년 하반기 이후 유가의 회복 추이는 美 셰일오일 등 비OPEC의 생산 감소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의 공급 과잉 완화와 함께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가 진행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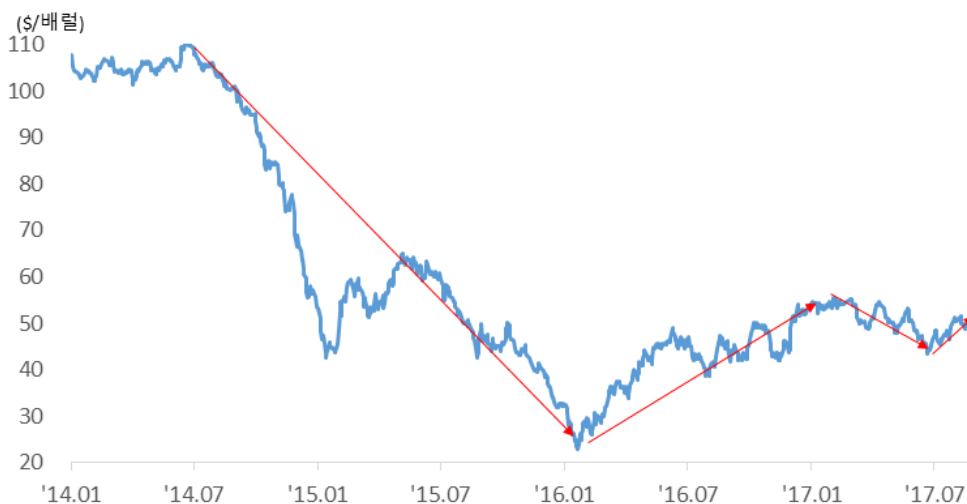
– 2016년 11월 말에 OPEC은 1일 원유생산량(b/d)을 3,250만 배럴로 제한하는 감축안에 최종 합의

– 2016년 12월에는 러시아 등 11개 비OPEC 산유국들도 OPEC의 감산합의에 동조

* Dubai 유가 추이 (\$/배럴) :

('14.6월) 107.93 → ('15.8) 47.76 → ('16.1) 26.86 → ('16.1) 26.86 → ('17.1) 53.71

<최근 4년 간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 2017년 국제유가는 상반기에 등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7월로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8월에는 50달러 부근에서 안착

- OPEC 감산합의** 이후 국제유가는 2017년 1/4분기 중 50달러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2/4분기 들어 미국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면서 40달러 중반까지 하락

* 2017년 Dubai 유가 추이(\$/배럴) :

(1월) 53.71 → (2) 54.39 → (3) 51.20 → (4) 52.30 → (5) 50.72 → (6) 46.47 → (7) 47.57 → (8) 50.22

** 2017.1월 ~ 6월말까지 일일180만 배럴(세계 생산의 약 2%) 감산하기로 합의

- 상반기 국제유가의 하락은 주로 공급 요인(美 오일 및 셰일 증산, OPEC 감산합의에 대한 실효성 약화)에 의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특히 신흥국 경기 부진과 같은 수요 요인에 의한 유가 하락으로 보기는 힘들

-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감축 합의*와 함께 미국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 기대 속에서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

* 올해 7월 24일에 OPEC과 비OPEC의 모니터링 회의에서 사우디가 수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 유가 변동이 국내 수출입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충격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

- 유가 상승은 생산원가 상승을 통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국에 비해 국내 수출 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2016년 기준 35.1%)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이 수출 물가에 얼마나 전가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

-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고유가(저유가)로 인해 수입단가가 상승(하락)하여 교역조건 악화(개선)으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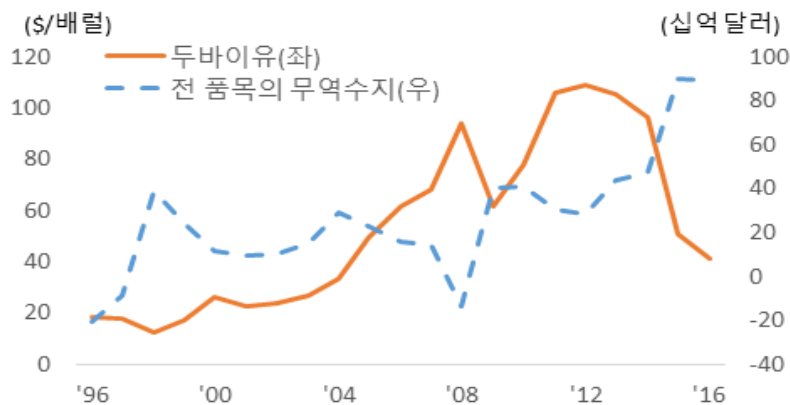
- 국제유가 변동이 우리 수출입 단가로 전이되어 궁극적으로 무역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 변동은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에 음(-)의 전이효과를 야기 (유가 상승 시 수지 악화, 유가 하락 시 수지 개선)

- 에너지 원자재 수입 중 원유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무역의 특성 상 유가 상승(하락)으로 원유수입이 증가(감소)하여 우리 전체 무역수지에 부정적(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로 기인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 수입규모는 443억 달러로, 전체 에너지 원자재 수입규모(809억 달러) 대비 약 54.7%를, 총 수입규모(4,062억 달러) 대비 10.9% 차지

<유가 변동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 영향>



자료 : Petronet, 한국무역협회

■ 본 연구에서는 원유 이외의 제조업 무역수지에 대한 유가 변동의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유가 충격의 무역수지 영향을 제조 업종별로 보면, 국제유가와 유가관련 품목의 무역수지 간의 양(+)의 상관관계
 -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품목의 경우 유가 상승(하락) 시 동 품목들의 무역수지가 개선(악화)되는 양상

<국제유가와 한국의 유가관련 품목의 무역수지 비교>



자료 : Petronet, 한국무역협회

II. 연구방법 및 모형

■ 유가 변동이 수출입 단가를 거쳐 궁극적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조 업종별로 분석

- 국제유가와 한국의 산업별 수출단가 지수(2000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입 단가에 대한 국제유가 변동의 장기 전이효과를 추정
 - 본 보고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화학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등 8개 산업으로 구분하며 분석
 - 주요 제조업 중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수송장비, 기타제조업 등은 수출단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해 제외
 - 다만, 품목 분류 시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대분류 단위의 품목별 수출단가 지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소분류 품목군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 국제유가 외에 전 세계 수요와 경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설명변수로 OECD 경기선행지수와 원/달러 환율을 활용

■ 유가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하락 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키는데 있어 비대칭적 형태가 나타남을 반영¹⁾. 비선형 자기시차모형(Non-linea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으로 추정

- 기존 연구에서 국제유가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의 상승·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대칭인 것으로 가정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월별 국제유가를 기초로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비대칭적인 영향을 분석

1)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에는 물가가 급등하지만 하락할 때의 국내 물가의 인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국제유가 변동의 비대칭적 파급효과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Mork, Mork et. al., Lee et. al., Ferderer, Hamilton, Cunado and Gracia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유가 충격의 비대칭적 영향을 분석하여 상승기의 충격이 하락기의 충격보다 그 정도가 더 크다고 분석

〈비선형 자기시차 모형(Non-linear ARDL(p,q))〉

$$\begin{aligned} \text{Log}(EXI_t) = & \sum_{i=1}^p \alpha_i \text{Log}(EXI_{t-i}) + \sum_{j=0}^q (\beta_j^+ \text{Log}(oil_t^+ - j) + \beta_j^- \text{Log}(oil_t^- - j)) \\ & + \lambda_i \text{Log}(OECD_t) + \phi_i \text{Log}(REFX_t) + \epsilon_t \end{aligned}$$

$$\begin{aligned} \text{Log}(IMI_t) = & \sum_{i=1}^p \alpha_i \text{Log}(IMI_{t-i}) + \sum_{j=0}^q (\beta_j^+ \text{Log}(oil_t^+ - j) + \beta_j^- \text{Log}(oil_t^- - j)) \\ & + \lambda_i \text{Log}(OECD_t) + \phi_i \text{Log}(REFX_t) + \epsilon_t \end{aligned}$$

$$- \text{Log}(oil_t) = \text{Log}(oil_0) + \text{Log}(oil_t^+) - \text{Log}(oil_t^-)$$

$$- \text{Log}(oil_t^+) = \sum_{j=1}^t \max(\Delta \text{Log}(oil_j), 0) \quad , \quad \text{Log}(oil_t^-) = \sum_{j=1}^t \min(0, \Delta \text{Log}(oil_j))$$

- ▶ (종속변수) EXI_t = 산업별 수출단가지수, IMI_t = 산업별 수입단가지수
- ▶ (독립변수) oil_t = 국제유가(두바이유)
- ▶ (통제변수) $OECD_t$ = OECD 경기선행지수, $FEFX_t$ =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 ▶ p = 수출물가의 시차(= 12), q = 국제유가 시차(=6)
- ▶ 분석기간 : 2000년 1월 ~ 2017년 4월 (월별기준)
 - 외환위기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 2000년이후로 분석기간을 설정
 - * 1997년 4/4분기 ~ 1999년 4/4분기
- 유가충격이 수출입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표본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통계 출처 : Bloomberg, 한국은행, OECD, BIS, Wind database

〈비대칭 오차수정모형(A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

$$\begin{aligned} \Delta \text{Log}(EXI_t) = & \rho \text{Log}(EXI_{t-1}) + \theta^+ \text{Log}(oil_{t-1}^+) + \theta^- \text{Log}(oil_{t-1}^-) \\ & + \sum_{j=1}^{p-1} \phi_j \Delta \text{Log}(EXI_{t-j}) + \sum_{j=0}^q (\pi^+ \text{Log}(oil_{t-j}^+) + \pi^- \text{Log}(oil_{t-j}^-)) + e_j \end{aligned}$$

$$\begin{aligned} \Delta \text{Log}(IMI_t) = & \rho \text{Log}(IMI_{t-1}) + \theta^+ \text{Log}(oil_{t-1}^+) + \theta^- \text{Log}(oil_{t-1}^-) \\ & + \sum_{j=1}^{p-1} \phi_j \Delta \text{Log}(IMI_{t-j}) + \sum_{j=0}^q (\pi^+ \text{Log}(oil_{t-j}^+) + \pi^- \text{Log}(oil_{t-j}^-)) + e_j \end{aligned}$$

- ▶ 국제유가가 수출입 단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 $\beta^+ = -\theta^+/\rho$, $\beta^- = -\theta^-/\rho$

III. 업종별 수출입 단가 및 수지 영향

■ (단가 영향) 유가와 수출입 단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유가 상승 시 수출과 수입 단가 탄력성이 유가 하락 시 보다 높게 추정

- 국제유가 상승은 수출입 단가를 상승시키며, 반면 유가 하락은 수출입 단가를 하락시키는 양(+)의 전이효과

- 제조 업종별 수출단가의 탄력성

- 유가 1% 상승 시 제조업별 수출단가 상승폭 :

- 석유제품 0.83% > 석유화학 0.34% > 일반기계 0.10% > 섬유 0.09%

- 유가 1% 하락 시 제조업별 수출단가 하락폭 :

- 석유제품 0.81% > 석유화학 0.29% > 일반기계 0.08% > 섬유 0.04%

- 제조 업종별 수입단가의 탄력성

- 유가 1% 상승 시 제조업별 수입단가 상승폭

- 석유제품 0.83% > 석유화학 0.30% > 섬유 0.11% > 일반기계 0.10%

- 유가 1% 하락 시 제조업별 수입단가 하락폭

- 석유제품 0.82% > 석유화학* 0.25% > 일반기계** 0.08% > 섬유 0.06%

- * 원유로부터 생산되는 나프타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및 석유화학다운스트림 업종(플라스틱, 고무, 섬유, 도로 등)은 고유가에 따른 직접적 영향권에 속함

- ** 국제유가 하락세의 지속은 그 동안 석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온 산유국들의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재정적자 전환 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약 100여개 산유국들은 각종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 급감 등 일반기계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동 품목의 수출단가를 하락시킬 가능성

- *** 2016년 산유국 GDP 순위 : (1위)미국, (2위)중국, (13위)러시아, (21위)사우디아라비아, (30위)이란
2015년 산유국의 제조업 수출 중 석유수출 및 관련 산업 비중(% , 자료 : 세계은행) :
이라크(99.97), 앙골라(95.00), 쿠웨이트(89.11), 사우디(78.40), 카자스탄(68.02), 러시아(63.0)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업종별 수출입 탄력성 분석>

	수출단가 탄력성			수입단가 탄력성		
	유가 1% 상승		유가 1% 하락	유가 1% 상승		유가 1% 하락
석유제품	0.8349	>	0.8111	0.8259	>	0.8156
석유화학	0.3388	>	0.2949	0.2996	>	0.2548
일반기계	0.1007	>	0.0816	0.0966	>	0.0830
섬유	0.0944	>	0.0355	0.1109	>	0.0617

주 : 유가 수준 10% 이내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 저자 자체 계산

■ (수지 영향) 국제유가 상승·하락에 따른 우리 제조 업종별 무역수지로의 파급효과*를 수출입 단가의 탄력성 추정치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유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유가 하락충격이 상승충격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

- 전반적으로 유가 1% 하락 시 유가관련 품목의 월별 무역수지가 2,282만 달러만큼 악화되는 데에 비해, 유가 상승(1%) 시에는 수지가 매달 1,687만 달러 개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대칭 양상을 보임
 - 이는 유가 상승 시 수출입 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외 수요량(수출입 물량) 탄력성이 유가 하락 시 단가 하락에 따른 수요량 탄력성보다 높음에 기인
- (유가 1% 상승 시) 품목별 무역수지(월별 기준)는 석유제품 1,018만 달러, 석유화학 563만 달러, 일반기계 73만 달러, 섬유 34만 달러가 각각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
- (유가 1% 하락 시) 석유제품의 월별 무역수지가 1,523만 달러, 석유화학은 695만 달러, 일반기계 경우 79만 달러가 각각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
 - 섬유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1%)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개선(15만 달러)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관련 품목별 무역수지(월간 기준) 영향>

(단위 : 만 달러)

	유가 1% 상승 시			유가 1% 하락 시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석유제품	2,042	1,025	1,018	-3,099	-1,576	-1,523
석유화학	830	267	563	-999	-305	-695
일반기계	255	183	73	- 279	-200	-79
섬유	118	84	34	-47	-62	15
계	3,245	1,558	1,687	- 4,424	-2,142	-2,282

주 : 1. 2000~2016년 중 유가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유가 1% 변동에 따른 수출입 변화를 기중 평균하여 산출(월별 기준)

2. 유가 1% 변동에 따른 수출입 변화

= (전년도 동월 수출실적 * 유가 1% 상승(하락) 시 수출단가 탄력성) / 100

3. 분석기간 동안의 유가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 단가 변화만을 고려

4. 유가 상승기(하락기) : 전년동월대비 유가 변동률 플러스(마이너스) 기간

자료 : 저자 자체 계산

■ 월별 유가 등락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영향을 산정해 본 결과, 2016년에 전체 수지가 37.3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

- 제조 업종별 무역수지 변동폭을 살펴보면, 유가 변동에 따라 석유제품 수지는 24.3억 달러, 석유화학은 11.8억 달러, 일반기계는 1.7억 달러가 각각 악화된 것으로 추정

- 반면 섬유의 경우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0.6억 달러 개선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관련 품목별 무역수지 영향>

(단위 : 억 달러)

품목명	'16년 실적 (A)	'15년 실적	추정 변동분 (B)	'16년 추정치 (C)	잔여분 (A-C)
석유제품	144.7	166.5	-24.3	142.2	2.5
석유화학	242.6	244.5	-11.8	232.7	9.9
일반기계	165.1	142.9	-1.7	141.2	24.0
섬유	-7.0	1.9	0.6	2.5	-9.5
계	545.5	555.8	-37.3	518.6	26.9

주 : 추정 변동분(B)은 월별 유가변동으로 인한 무역수지 변동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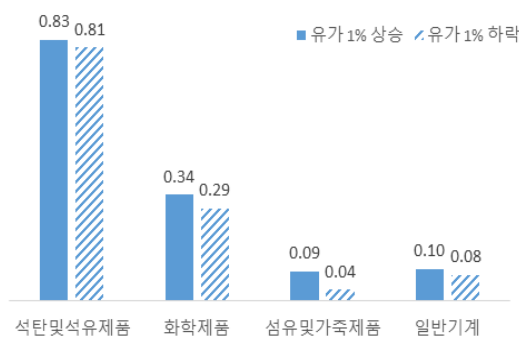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자체 계산

IV.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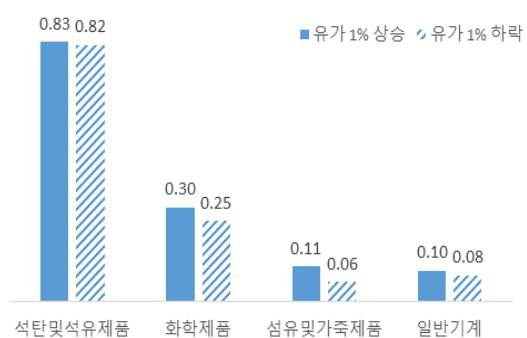
■ 유가 변동의 수출입 단가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시 일부 품목의 수출입 단가도 상승과 하락하는 양(+)의 전이효과가 나타남

- (장기적 비대칭) 대부분 유가관련 품목에서 유가 상승기의 충격이 하락기의 충격보다 더 크게 추정되어 국제유가 하락기에 수출입 단가로의 전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

<유가 변동 시 수출단가 탄력성 비교>



<유가 변동 시 수입단가 탄력성 비교>



자료 : 저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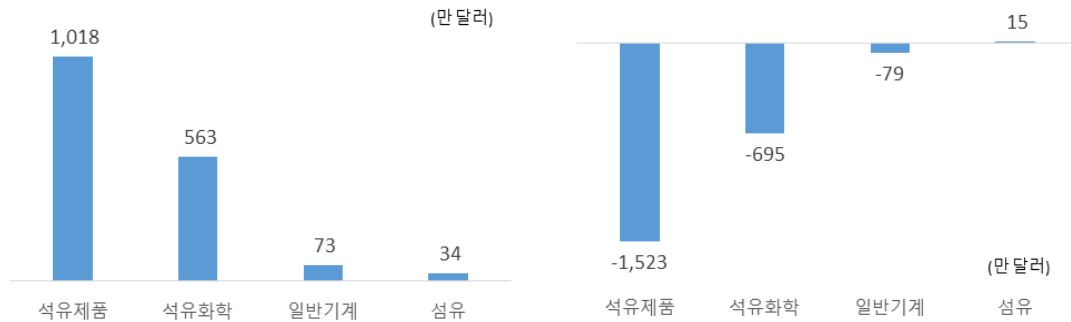
■ 유가관련 제조업종별 무역수지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 시 수지 감소폭이 유가 상승 시 수지 증가폭을 상회하는 비대칭 양상

- 유가 1% 상승 시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섬유의 무역수지(월간 기준)가 1,687만 달러 개선에 그치는 반면 유가 1% 하락 시에는 동 품목의 수지가 2,282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

- 유가 1% 상승 시 제조 업종별 월별 수지 변동분 (단위 : 만 달러) :
(석유제품) 1,018 (석유화학) 563 (일반기계) 73 (섬유) 34

- 유가 1% 하락 시 제조 업종별 월별 수지 변동분 (단위 : 만 달러) :
(석유제품) -1,523 (석유화학) -695 (일반기계) -79 (섬유) 15

<유가 1% 상승 시 월간 무역수지 변동> <유가 1% 하락 시 월간 무역수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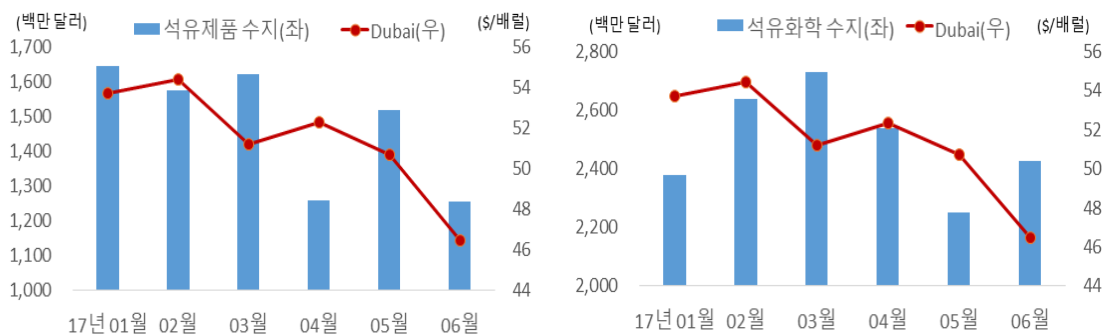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자체 계산

■ 국제유가가 변동함에 따라 유가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비대칭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가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올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50달러를 상회하면서 원유 관련 제품의 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하반기 유가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제조업 관련 업종의 무역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하반기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대체적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증가, 달러화 강세 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가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음

<2017년 상반기 국제유가와 유가관련 품목의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Petronet

- 이에 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제조업 중심 → 지식서비스업 중심), ②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③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유가 관련 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대외경쟁력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K. A. Mork, “Oil and the Macroeconomy When Prices Go Up and Down : An Extension of Hamilton's Resul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1, pp. 740–744, 1989.
- K. A. Mork, Olsen, and H. T. Mysen, “Macroeconomic Responses to Oil Price Increases and Decreases in Seven OECD Countries”, *Energy Journal*, Vol.15, pp. 19–35, 1994.
- K. Lee, S. Ni, and R. A. Ratti, “Oil Shock and the Macroeconomy : The Role of Price Variability”, *Energy Journal*, Vol.16, pp. 39–56, 1995.
- J. P. Ferderer, “Oil Price Volatility and the Macroeconomy : A Solution to the Asymmetry Puzzle”,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18, pp. 1–16, 1996.
- J. D. Hamilton, “This Is What Happened to the Oil Price – Macroeconomy Relationship”,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38, pp. 215 – 220, 1996.
- J. D. Hamilton, “What Is an Oil Shock?” NBER Working Paper, No.7755, 2000.
- J. Cunado, F. P. Garcia, “Oil prices,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 evidence for some Asian countries”,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45, No.1, pp. 65–83, 2005.
- J. H. Kim, “A Study on Asymmetric Price Adjustment in Domestic Petroleum Marke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 Review*, Vol.24, No.3, pp. 523–549, 2015.

국제유가 변동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Trade Focus 2017년 34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7년 9월 8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